

이렇게 들었다

가뭄 그리고 수해

하늘만 쳐다볼 일인가

■소 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밭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 시켜거든 언제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작은 재난을 대단치 않게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작은 물방울이 시간이 흐르며 큰 강물이 되듯이 작은 재난도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

<열반경>

최근 단비가 일부지역에 내렸지만 전국이 석 달이상 계속된 가뭄으로 초비상이다. 논밭이 바짝 말라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벼가 타들어 가고 있다. 또 농업용 저수지의 8.7%가 바닥을 드러내며 평균 저수율도 50%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에선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까지 한강 3개, 낙동강 7개, 금강 1개, 섬진강 1개 등 모두 12개의 중소형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으로 항상 재난이 생길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정부의 레퍼토리다. 90년대말 정부는 물부족 현상에 대비해 영월 동강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 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댐건설을 정부가 추진한다면 또다시 환경 단체의 반발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불투명할 지도 모른다. 또 댐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댐 하나 건설하는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매년 발생할 지도 모를 가뭄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우선은 평소 국민들이 물을 자원이라고 생각해 절약하고 재이용하는 수자원 관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평상시에는 안일하게 보내다가 막상 재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왜 미리 재난을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 하지 못했을까' 자책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이런 점에서 <아나사사경>에 기록된 부처님 말씀은 유비무환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즉 "세상에는 항상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현명한 군주라면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려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떠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치산치수를 잘해 어떠한 사태에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하셨다. 이와같이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를 천재지변에 대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다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가뭄, 홍수 등의 재난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한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도 매년 집중 폭우로 인한 수재에 시달리고 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하늘만 믿고 방한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꼼꼼하게 점검하고 방비책을 세워 큰 화를 막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김주일기자

외모로 평가하는 사회 '비정상'

불자 세상보기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비가 온 대지를 적셨다. 세상을 더럽히는 온갖 먼지와 오물들의 정수리에도 야깁없는 물 세례로 새로운 생각을 하라는 메시지도 아끼지 않는다.

전쟁'이란 엄청난 단어가 여기저기 남용되고 있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다이어트 열풍으로 그야말로 여성계와 마스크이 난리다. 한 연예인이 날씬해지고 자기 몸매를 메스를 들이대고 뛰고 달리고 한계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야단들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여성이라면 늘씬한 몸매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연할 것이다.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분명히 노력도 해야

하지만 억지로 보다는 자연적으로 해야 인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와 반대로 인위적이고 요행적인 방법에 의존하여 그 방법을 찾으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체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요법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 해 보자 하는 사고 방식도 문제다. 무조건 살 빼기를 권하는 광고나 패션쇼, 언론매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정도로 마른 여성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공이나 인격을 다듬어 아름다운 향기를 피울 생각은 않고 오로지 외모나 몸매로만 세상을 부딪치려 하는지? 세

너도나도 다이어트

언론서 오히려 부추겨

매일 108배 어떻게

월 출러 늙음이 찾아 왔을 그때는 땀 뻘 흘려 무었으로 메꿀 것인가. 사회 곳곳의, 특히 여성에 대한 외모지상주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누구의 지적처럼 외모가 한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은 모르지만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사회는 비정상적이며 위험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다이어트 관련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여 지난해는 1조원 이상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고, 또 빼려고 수많은 돈을 들

이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어느 선사의 말씀처럼 먹은 것 만큼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다이어트로 인해 드는 많은 경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은 아침에 떠올라 뜨거운 열기로 잠시 우주의 모든 필요한 곳곳에 아무 대가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가는 아름다운 노을 속으로 사라진다. 사람의 몸도 잠시 탕글거려다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병에 대한 면역도 약해져 서서히 고항 찾아 본래의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100년도 못 사는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살이 찌는 것은 물(또는 지방)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많다는 얘기도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강문숙

시인

해져 활기찬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니 숲길이나 산속의 절을 찾아 걷는 것 역시 살도 빠지고 탄력도 되어 심신이 편안해 질 것이다.

내면의 당당함을 키워 나간다면 풍동하면 어떻고, 이득없는 패션을 입은들 어떠하겠는가.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다. 욕심을 줄이는 생활을 한다면 살이 찌 이유가 없다. "우리는 실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가 만들어 놓은 가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윌트 리프만때 스킴 이른가의 말을 상기하며 당당한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

열린마당

승가대 안암학사 활용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로 이전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옛 캠퍼스인 안암학사의 활용방안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총회 결의의 기구인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원회가 종단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수익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안을 지난 2월 내놓기는 했지만 중

앙승가대 동문회 및 교계 일각에서는 중앙승가대 대학원 및 종단의 연수·교육시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사실상 총무원의 입장을 대리고 있는 이전대책위 측의 생각과 중앙승가대 동문회 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임대사업 통해 재정부담 덜자"

계성스님 (이전대책위 간사)

우선 전제해 둘 것은 이것이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이전대책위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중앙승가대 이전대책위는 안암학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지난 2월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물론 총무원이 독단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논의를 통해 결정됐듯이 총무원 직무부 교육원 법인사무처 등의 협의 아래 임대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원이나 교육연수공간 등 여러 가지 안암학사 활용방안이 나왔고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전대책위는 현재 종단과 중앙승가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익 창출에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김포학사 공사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100억원이나 남아있고, 김포학사 운영 경비도 안암학사 대보다 10억 이상 늘어나 종단의 재정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태. 게다가 조계종 총무원 신청사 건립 문제로 남아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안암학사의 시설과 환경을 재정 수입처로 적극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임대 기간이나 방방 및 입주 건물의 성격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대학원이나 교육연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몇 년간 벌여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대학원이나 교육연수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시설도 개보수해야 하는 등 시설확보에 따른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종단의 재정상태로서는 사실상 무리일 수밖에 없다.



"대학원이나 불교문화원 개설"

원행스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안암학사의 위치나 환경을 고려할 때 중앙승가대 대학원 건립이나 불교문화원을 개설해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승가대도 이제는 석 박사를 배출할 때가 됐고, 승가대학원 건립은 종단 교육사에 큰 획을 긋는 불사가 될 것이다. 게다가 안암학사는 주위에 학교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주차시설도 잘 돼 있어 대학원을 건립하기에 더더욱 알맞다.

문화원을 개설하는 것은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자는 의미다. 범패나 판소리, 탕화, 선무도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적으로도 문화원이 들어서기에 딱 좋은 곳이고 적당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현재 안암학사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불교계에서는 단 하나뿐인 보육교사교육원은 정원 200명에 50명 밖에 차지 않고 있다. 실습실과 도서관 등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인데, 문화원으로 활용하면 공간을 확보해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포교 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익사업을 하자는 종단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종단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를 전면 부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종단이 어렵다고 해서 수익사업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종단 교육이 그만큼 한 발 뒤떨어지게 된다.

안암학사 활용방안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전경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활용방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쉽게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이전대책위가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쪽으로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학교법인 이사회가 아직까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사실 이전대책위가 '임대' 방안을 내놓기 전까지 중앙승가대와 학교 총동문회, 조계종 교육원과 종단은 서로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내놓았었다. 안암학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당초 학교 측은 대학원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왔었다. 그

러나 지난해 말 제3대 총장이 취임한 총범스님은 "재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피력했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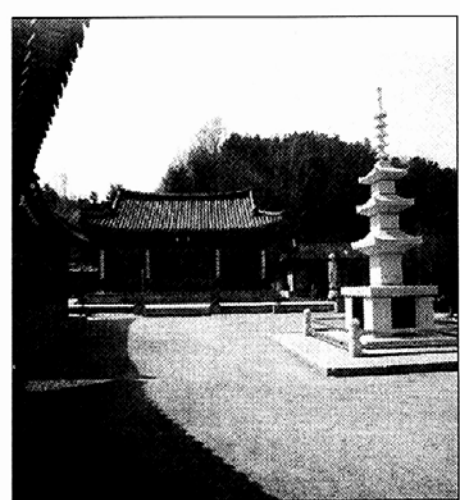
이전대책위도 지난 2월 수익 창출을 위한 '임대'로 방향을 제시했지만 학교법인 이사회, 실질적으로는 이사회 이사장인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 다만 수익창출 쪽에 비중을 두고 있어, 이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을 뿐이다.

안암학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자비관)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정진관을 비롯해 기숙사 건물 등 6000여평의 규모로, 현재는 어산작법학교와 보육교사교육원, 승가원 법인사무처, 중앙승가대 동문회 등이 잔류해 있다. 그러나 나머지 공간은 4개월여가 되도록 비어 있는 상태다.

한명우 기자

비어있는 안암학사

총무원장 의중 '방향타'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靈塔)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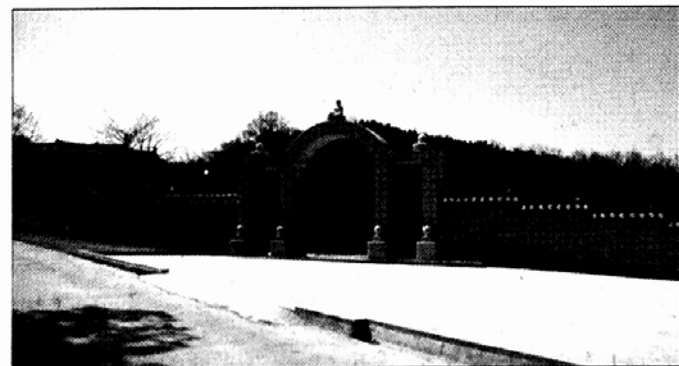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정문 ▼

조성된 영탑 ▼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탐공원 설립의 의의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 3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